

아시아 공동체론 수강 후기

6개월 전 일본에서 아시아 공동체론을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나는 일본 오사카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갔었다. 그곳에서 이부나카 교수님의 <국제관계와 글로벌리더십>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은 외무성 차관으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회담에서 일본인 여섯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일본인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일본이 북핵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놀라웠다. 북핵 문제는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 정도만 관련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문제를 겪는 아시아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 그래서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과목명이 와닿았던 것 같다. 정확히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시아 공동체론을 수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전공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매주 다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최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교수님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재단에 소속된 강사님도 가끔씩 오신다.) 국제학부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과목과 연결된 내용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하루는 아시아 공동체론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 다루었는데 함께 수강했던 통상 산업정책, 중국입문에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를 펼치고 있다는 내용을 배웠기에 미중 갈등을 이해하기 쉬웠다. 그래서 국제학부 전공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또한,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규슈대학교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세 과목 교수님 모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나도 모든 섹션에 자리를 지켜야 했다. 긴 시간이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두 학교 교수님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그 주제에 관한 토의가 이어진다. 한일 동시 통역기 덕분에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국제 학술 세미나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이부나카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아시아의 자유 진영 선진국으로서 힘을 합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다. 한미일 반도체 공급망 동맹부터 북핵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협조했을 때의 이익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두번째, 유라시아 재단의 후원을 받는 강의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국제 학술 세미나도 많은 지원과 인력이 투입된 큰 행사였다.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었다. 유라시아 재단의 후원을 받아 개설되는 강의가 많지 않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예시로 들었지만 수업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만과 같은 유사 입장국에 대해서도 다루니 관심 있으면 과목에 대해 찾아보길 바란다.